

태양에너지 엑스포 2월15일 개막

<2012 세계 에너지절약 엑스포>가 개최된다.

엑스포 조직위원회는 “<2012 세계 에너지절약 엑스포>가 2월15-17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2월10일 발표했다.

조직위원회는 “대체에너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”고 밝혔다.

엑스포에는 친환경 히트펌프 전문기업인 대성히트펌프와 일진E-Plus, 온시원시스템 등이 참가해 경제성이 높은 히트펌프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며, 에너지절약형 <그린 하이브리드 제습기>를 개발한 에이티이엔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해결책을 소개한다.

또 기아자동차가 국내 최초 양산형 전기자동차(EV)로 개발한 <레이 EV>와 포스코 ICT의 스마트그리드 이동식 홍보자동차가 전시되며, GE라이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미강이퍼텍은 다양한 등기구와 LED(Light Emitting Diode) 조명기구를 소개할 예정이다.

한편, <2012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>도 2월15-17일 킨텍스에서 개최된다.

잉리 솔라(Yingli Solar)와 LDK솔라(LDK Solar), 아스트로너지 쏘라 코리아(Astronergy Solar Korea), JG솔라(Jinguangneng Solar-Energy), 중국 쑤저우(蘇州)의 성용광전자(Shenglong PV-Tech) 등이 참가해 첨단 기술력을 선보일 방침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2/10>